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본원	직 위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성 명	문유경 한진영
출장기간	6/19-6/24 (4박 6일)		출장지	스웨덴 스톡홀름 및 예테보리		
출장목적	- 성인지 통계 선도국인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관련 연구의 최신 동향 파악 -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경비부담	본원 수탁과제 부담: 7,403,920원 (문유경 선임연구위원 외 1인)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및 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스 웨 덴	□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 한광섭 공사 - 조혜란 2등 서기관		▫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과 성인지 통계 - 스웨덴의 역사적 발전 과정 소개 - 스웨덴의 최근 이슈와 여성정책 - 스웨덴의 여성정책 - 스웨덴의 아동양육 정책 - 한국의 성인지 통계 및 여성정책 - 성인지통계 시스템 소개			
	□ 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 - Maja Lundqvist(Communications Officer)		▫ 스웨덴 여성정책 연구의 최신 동향 파악을 통한 성인지 통계 주제 발굴, 성 주류화 정책과 성인지 통계 - 기관 및 업무 소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개 - 성 주류화 정책의 운영을 위한 협력 방법 - 한국의 성인지 통계 현황 -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쟁점 - 스웨덴의 최근 이슈와 여성정책			
	□ Stockholm University - Anita Nyberg(Professor emeritus/ Gender Studies/Department of Ethnology, History of Religions and Gender Studies) - Lenita Freidenvall(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Ph.D./Senior lecturer/Director of first level studies)		▫ 양성평등정치와 성인지 통계 - 한국의 성인지 통계 소개 - 성인지통계 시스템 소개 -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현황 - 스웨덴의 최근 여성정책 관련 이슈 - 양성평등정치와 성인지 통계 ▫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성인지 통계의 활용 - 한국의 성인지 통계 소개 - 성인지통계 시스템 소개 -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현황 - 일·가정 양립과 여성정책의 발전 방향 - 스웨덴의 최신 성인지 통계 요구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6. 7. 8.

출 장 복 명 자 : 문 유 경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스웨덴의 성인지통계 정책 현황 및
관련 최신동향 파악
-스웨덴 스톡홀름 및 예테보리-

2016. 7. 8.

보고자 : 문유경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

※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상세내용은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문유경 선임연구위원에게 문의바람 (02-3156-7132)

◎ 출장개요

□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현황 비교 워크숍

- 일시 : 2016. 6. 20(월) 17:00-20:00
- 주요 방문지: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스웨덴 스톡홀름)
- 주요 면담자: 한광섭 공사, 조혜란 2등 서기관

<주요 논의사항>

-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과 성인지 통계
 - 스웨덴의 역사적 발전 과정 소개
 - 스웨덴의 최근 이슈와 여성정책
 - 스웨덴의 여성정책
 - 스웨덴의 아동양육 정책
 - 한국의 성인지 통계 및 여성정책
 - 성인지통계 시스템 소개

□ 스웨덴의 여성정책 연구의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워크숍

- 일시 : 2016. 6. 21(화) 11:00-15:00
- 주요 방문지: 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스웨덴 예테보리)
- 주요 면담자: Maja Lundqvist(Communications Officer)

<주요 논의사항>

- 스웨덴 여성정책 연구의 최신 동향 파악을 통한 성인지 통계 주제 발굴, 성 주류화 정책과 성인지 통계
 - 기관 및 업무 소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개
 - 성 주류화 정책의 운영을 위한 협력 방법
 - 한국의 성인지 통계 현황
 -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쟁점
 - 스웨덴의 최근 이슈와 여성정책

□ 스톡홀름대학교의 정치학과 워크숍

■ 일시 : 2016. 6. 22(수) 16:00-18:00

■ 주요 방문지: 스톡홀름대학교 정치학과

■ 주요 먼담자: Lenita Freidenvall(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Politics and gender)

<주요 논의사항>

- 양성평등정치와 성인지 통계
- 한국의 성인지 통계 소개
- 성인지통계 시스템 소개
-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현황
- 스웨덴의 최근 여성정책 관련 이슈
- 양성평등정치와 성인지 통계

□ 스톡홀름대학교 젠더스터디학과 워크숍

■ 일시 : 2016. 6. 23(목) 10:00-12:00

■ 주요 방문지: 스톡홀름대학교 젠더스터디학과

■ 주요 먼담자: Anita Nyberg(Department of Ethnology, History of Religions and Gender Studies/Gender Studies)

<주요 논의사항>

-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성인지 통계의 활용
- 한국의 성인지 통계 소개
- 성인지통계 시스템 소개
-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현황
- 일·가정 양립과 여성정책의 발전 방향
- 스웨덴의 최신 성인지 통계 요구

1. 결과보고

가.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현황 비교 워크숍

1) 기관

- ☐ 주스웨덴왕국대한민국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스웨덴 스톡홀름)

2) 면담자

- ☐ 주스웨덴대사관 한광섭 공사(Minister)
- ☐ 주스웨덴대사관 조혜란 2등서기관(Second Secretary)

3) 논의사항 :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과 성인지 통계

- ☐ 스웨덴의 역사적 발전 과정 소개¹⁾(한광섭 공사)
 - 19세기 중반부터 1930년까지 스웨덴은 빈곤으로 인해 스웨덴 인구 중 약 150만명이 대부분 북미 지역으로 이주하는 해외 대이주 기간이었음.
 - 1930년대 사민당 집권이후 복지국가로서의 기반을 구축했고, 제 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에 이르러 철강,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음.
 - 1991~1994년 경제위기가 있었으나, 1997년 재정흑자 달성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임.
 - 유럽연합 (European Union)과 관련해서 1995년에 가입했고, 2001년 EU 의장국 수임하였음
- ☐ 스웨덴의 최근 이슈와 여성정책²⁾(한광섭 공사)
- ☒ 스웨덴 이민청은 올해 약 4만~10만 명의 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함.
 - Morgan Johansson 법무·이민부 장관은 이러한 수준에서는 스웨덴 정부가 난민 수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사회통합이 주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2015년에는 16만 3천여 명의 난민신청자들이 입국하였음.
- ☒ 난민 관련 주된 정책으로 1)임시 난민 규정 관련 일부 수정안(영주권 발급제한) 도입 발표(4.28) 2) 난민신청 거부된 자의 추방 강화 계획 발표(5.2)가 있음

1) 주스웨덴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스웨덴 정세동향 > 스웨덴 역사,
2016. 7. 7, <http://swe.mofa.go.kr/korean/eu/swe/policy/overview/index.jsp>

2) 주스웨덴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스웨덴 정세 동향 > 최근 난민대응 동향,
2016.7.7.<http://swe.mofa.go.kr/korean/eu/swe/policy/overview/index.jsp>

○ 스웨덴의 여성정책³⁾

- 스웨덴 정부는 자신을 페미니스트 정부(A Feminist Government)라고 지칭함
- 스웨덴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니스트 정부를 가졌으며, 성평등(gender equality)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우선순위 중 가장 주된 요소라고 밝힘
- 즉, 성평등한 관점을 국가적,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책 형성의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미임.
- 여성과 남성은 모두 그들의 삶과 사회를 형성하는데 같은 힘을 가져야 함. 이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와 정의의 측면임.
- 페미니스트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이고,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중요한 요소임.

□ 스웨덴의 아동양육 정책⁴⁾(조혜란 2등 서기관)

○ 스웨덴의 아동양육 정책에서 여성의 역할

- 여성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기보다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함
- 여성 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공보육 정책이 발전하게 됨.

○ 스웨덴의 가족정책의 목표

- 모든 가정에 대해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
-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있음.
-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고용상의 성 차별을 해소하며, 가정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출산율은 1.88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됨

□ 한국의 성인지 통계 및 여성정책(문유경 선임연구위원)

- 별첨2 참고

□ 성인지통계 시스템 소개(한진영 연구원)

- 별첨3 참고

4) 기타

- 없음

3)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6. 7. 7,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a-feminist-government/>

4) 스웨덴의 아동 양육정책(2016.1.4.), 주스웨덴 대사관

나. 스웨덴의 여성정책 연구의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워크숍

1) 기관 소개

□ 기관명 : 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Göteborg University)(스웨덴 예테보리)

□ 소개

○ ‘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의 주요 목적은 젠더 연구를 위한 스웨덴의 중심기구로서 성과 성 평등에 대해 학문과 사회적 연관을 통해 지식과 연구의 강화임

- ‘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는 1998년 스웨덴 의회 산하에서 성 연구와 양성 평등의 영역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 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에 위치해있으며, 스웨덴 정부의 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인원은 약 30명 정도임.
- 주요 과업은 ‘젠더연구’와 ‘성평등’임. 즉, 성 인지적 관점의 중요성 증진 및 연구 분야 확장과 정보의 전파임.
- 국제적으로 북유럽 및 유럽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짐. 2008년 이후로, 스웨덴 정부와 북유럽 이사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이행해왔음.

○ 주요 연혁

- 2009년 가을 : 정부가 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를 예테보리 대학에 직접적으로 위임하기로 결정함. 2008년 7월, 사무국은 주에서의 성평등의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성 주류화 프로그램(Gender Mainstreaming Programme)(Jämi)을 스웨덴 정부로부터 위임받았고, 이는 2010년 12월 31일에 종료함.
- 2011년 : Jämställ.nu(Includegender.org)라는 웹사이트 운영시작
- 2012년 가을 : Nordic Information on Gender(NIKK) 운영
- 2013년 : 정부기관 GMGA(Gender Mainstreaming in Government Agencies)에서 18개 주 정부로부터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관련된 과업을 위임받음.
- 2015년 : 23개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확장됨
- 2016년 : 다른 18개 기관과 특정 공식 책임조직이 더해짐. 2018년에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계획되어있음.
- 2016년 : 2016-2019년 동안 주 지원을 받는 모든 고등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와 Jönköping University의 지원 하는 일을 위임받음
- 2009 - 현재 임원 : Kerstin Alnebratt

2) 면담자

□ 성명 : Maja Lundqvist

☐ 직책 : Communications Officer

☐ 연구분야 : Gender research

3) 논의사항 : 스웨덴 여성정책 연구의 최신 동향 파악을 통한 성인지 통계 주제 발굴, 성 주류화 정책과 성인지 통계

☐ 기관 및 업무 소개(Maja Lundqvist)

○ ‘젠더 연구(gender research)’와 ‘성평등 프로젝트(Gender Equality Projects)’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음.

-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프로그램에 33개의 대학과 60개의 지방정부가 함께 함

- 재정적으로 3년 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1년차에 18개 지방정부 지원, 2년차에 20개 지원, 현재 60개의 지방정부와 일하고 있음. 지방정부가 성 주류화 정책, 컨퍼런스 개최 등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함.

- 정부로부터 6천 만 크로나(한화로 약 81억)를 매년 받고, 대학에서 5백 만 크로나(한화로 약 7억)를 받음

○ 젠더 연구(gender research)와 성평등 프로젝트(gender equality projects)

- 젠더 연구(gender research)는 독립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짐.

- 성평등 프로젝트(gender equality projects)는 스웨덴 전체의 젠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예를 들어 영어 버전 홈페이지 운영, 컨퍼런스 개최, 영문 번역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기타사항

- 노르딕 국가와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홍보를 수행함. 예) 웹 사이트 운영, 홍보물, 책자, 세미나 운영 등이 있음.

- 현재 예테보리대학에 속해있지만, 스웨덴 전체를 위한 조직이며, 정부의 에이전시는 아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개(문유경 선임연구위원)

○ Maja Lundqvist의 요청으로 연구원의 소개 책자를 이용해 우리 연구원을 소개함

○ 소개

- 1983년에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며, 정부에 의해 편당을 받고 있음.

- 성 주류화 정책을 연구하는 부서가 있으며, 성 주류화 정책 이외에도 여성정책과 관련된 가족 정책 등을 연구함

- 운영방법으로는 70퍼센트를 정부로부터 편당을 받고 있음.

- 인력규모는 60명 정도의 박사가 있고, 여성정책 연구 수행을 위해 조직된 매우 큰 기관임.

□ 성 주류화 정책의 운영을 위한 협력 방법(Maja Lundqvist)

○ 60개의 지방정부와의 협력하고 있음

- Swedish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에서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60개의 지방 정부를 지원함. 60개의 정부를 포괄하는 하나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함.
- 60개의 정부는 매우 다른 조직이고, 일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다른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60개의 정부에 성 주류화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는 큰 도전임이 분명함.
- 이 업무의 담당자는 연구와 평가를 지원하는데, 이 담당자는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모니터링에 가까움. 이 담당자가 리서치하고 사용하는 매뉴얼에 따라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보통은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라 진행하지만 일상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논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함.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고치고 노력함.

□ 한국의 성인지 통계 현황(문유경 선임연구위원)

○ 한국의 성인지통계 현황 소개

○ 한국의 성인지통계에 대한 각종 도전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승인통계’ 제도가 있음. ‘국가승인통계’는 국가가 승인하는 통계로 국가가 인정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음.
- 이 승인 과정에서 성별로 통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심사하는 항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분리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도전이 존재함.
- 통계 승인 과정 시 성별 분리에 대한 요구는 스웨덴의 법을 따라서 만든 것임.
- ※ 별첨자료 2 참고

○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쟁점(Maja Lundqvist)

- 스웨덴에서는 성별로 통계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녀로 구분된 통계, 가족 구성원으로 구분된 통계, 빈곤으로 분리된 통계는 이를 모두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함.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 중에서는 모자가정이 더 가난하다는 통계를 위해서는, 성별 통계, 가족 구성원에 대한 통계, 빈곤에 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함.
- 성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이민자 남성과 스웨덴 남성, 그리고 남녀 간 차이, 교육 수준의 차이 등을 밝혀내야 하는 점이 중요함.

□ 스웨덴의 최근 이슈와 여성정책(Maja Lundqvist)

○ 스웨덴은 성평등에 있어서 인정받는 국가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존재함.

- 예를 들어 성별 임금 격차 문제, 이민자 내 성별 간 차이, 교육수준, 저소득층 등에서 성 평등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는 다를 것

○ 정치적인 무관심

- 젊은 세대는 직접적인 정치에 개입하기보다 인터넷이나 다른 모임을 하고 있음.
- 한국처럼 스웨덴도 정치에서 노령화가 진행되지 않지만, 페미니스트 정당 쪽에서 젊은 편임.
- 스웨덴 정부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자처하지만 행동과의 괴리가 있을 때가 있음
- 예를 들어 난민 문제를 들어보면 곧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것인데, 그 법은 난민 가족이 모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법임. 결국 이는 나머지 가족도 위험한 여행을 하게 만드는 것.

○ 여성에 대한 폭력

- 성매매
- 파트너에 의한 폭력

다. 스톡홀름대학교의 정치학과 워크숍

1) 기관

- ☐ 기관명 : 스톡홀름 대학교(Stockholm University)의 정치학과(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 기관 소개
 - 스톡홀름대학교는 1878년에 설립되었음.
 - 스톡홀름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7만명의 학생, 1,800명의 박사과정생, 5,000명의 직원이 과학, 인문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스톡홀름대학의 연구자들은 공공정책의 발전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 등을 함.

2) 면담자

- ☐ 성명 : Lenita Freidenvall 교수
- ☐ 직책 : Ph.D./Senior lecturer/Director of first level studies
- ☐ 관심분야
 - ☐ Lenita Freidenvall은 정치적 대표성, 쿼터제, 시민권(citizenship), 다문화(multicultural), 정당, 추천 과정(nomination processes), 성 평등 정치, 헌법정치(constitutional politics), 신제도주의 이론,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관심을 갖고 있음.
 - Member of WiP (Women in Politics Research Centre)
- ☐ 주요 수행 연구
 - Electoral Gender Quotas(financed by The Swedish Research Council)
 - Electoral Gender Quota Systems and Their Implementation in Europe(Financ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3) 논의사항 : 양성평등정치와 성인지 통계

- ☐ 한국의 성인지 통계 소개(문유경 선임연구위원)
- ☐ 성인지통계 시스템 소개(한진영 연구원)
- ☐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현황(Lenita Freidenvall)
- ☐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
 - 스웨덴의 고용부장관은 숫자가 여성의 지위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즉, 얼마나 여성이 독립적인지, 사회적 지위에서 얼마나 평등한지,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여성의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함.

○ 성인지 통계의 연혁

- 스웨덴의 성인지통계는 9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음
- 이는 70년대부터 시작된 노력으로 이룩된 것임. 여성운동에서부터 시작해 여성 정치가들에게 성인지 통계를 요구했고, 중요성에 대해 주장해 통계가 생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90년대부터 시작되었을 때, 이미 국회에 여성이 40%나 존재하였음. 그리고 1994 년도에는 국회에서 남녀 비율이 50:50으로 동일했고, 장관 비율도 동일했음.

○ 성인지 통계의 생산

- 오늘날 이런 통계들은 국가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루어지는데 개인 레벨까지 전부 성별로 생산됨.
- 통계청에서 2년 주기로 ‘women and men in sweden’ 이 발행되는데, 이 간행물을 통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파악함.
- 또한, 국가예산에서도 성별로 예산안이 짜이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국가에서 예산안을 짜기 전에 통계청에서 나온 남녀 비교 자료를 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서로 조절할 수 있게 함.

□ 스웨덴의 최근 여성정책 관련 이슈(Lenita Freidenvall)

○ 여전한 임금 문제

- 스웨덴의 평등에 대한 역사는 매우 깊음. 1926년부터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고 이후 줄곧 관련 내용이 이슈화되고 개선되어 왔음
- 여전히 성별 격차 존재, 여성은 출산의 부담이 있으며, 가사노동을 여성이 더 많이 수행하지만 이는 여전히 무급노동임.
- 여성은 출산 휴가가 있기 때문에 남성이 경력을 쌓는 시간에 집에서 더 많이 일 하게 되어 임금 차이가 존재하게 됨.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출산휴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 휴가를 오히려 짧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전형적인 스웨덴 여성은 전반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직장에서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아기도 낳는 것임. 부모를 위한 국가의 보험 제도가 잘되어있어 양육비 제공 등을 잘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국가에서 하는 부모 보험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하기 때문에 월급의 발전 면에서는 뒤쳐질 수 있기도 함.

□ 양성평등정치와 성인지 통계(Lenita Freidenvall)

○ 현재 스웨덴 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임.

- 현재 슬로건이 ‘she for he or he for she’ 임. 예를 들어 현재 이사회가 있으면 남자가 예전에 했던 사람이 더 많으면 남자가 스스로 알아서 물어내고 여자들에게 더 권리를 주겠다고 해서 자기가 추천해서 여자를 앉힘

○ 성평등정치 배경

- 양성평등정치의 배경은 1926년 참정권을 위한 운동을 시작으로 1993년 사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끊임없이 남성을 설득하는 긴 정치적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스웨덴은 70년대 이후 개인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것이 평등에 대해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였음.
- 스웨덴은 쿼터제에 대한 법이 없고, 국회, 정당 내에서 스스로 쿼터제를 하기로 결정하고 동의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갈등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

- 한국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임. 스웨덴에서도 오랜 시간 갈등이 있어왔고 조금씩 시간을 두고 변화시키고 개선하여 현재에 이르렀음.
- 예를 들어 1974년 부모가 출산휴가를 동등하게 내야한다는 법이 있었지만 당시에 는 드물고 이상한 일이었음. 장기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사안임
-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남성도 많음. 인터넷 댓글을 보면 성적으로 여성을 혐오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게 존재함.
- 예를 들어보면 남성이 스캔들을 일으키면 잘 무마 되지만 여자가 일으키면 더 크게 이슈화 됨

○ 스웨덴은 정치적으로 각 정당이 있는데 남성 위주로 선거 운동을 하거나 하면 절대 승리할 수 없음.

- 성 평등을 많이 권장하고 여성을 위해 많이 힘을 쓰려고 노력하고 실행하는 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음.

라. 스톡홀름대학교 젠더스터디학과 워크숍

1) 기관

☐ 기관명 : 스톡홀름 대학교(Stockholm University) 젠더스터디(Gender Studies)학과
(Department of Ethnology, History of Religions and Gender Studies)

☐ 소개

- 스톡홀름대학교는 1878년에 설립되었음.
- 스톡홀름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7만명의 학생, 1,800명의 박사과정생, 5,000명의 직원이 과학, 인문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스톡홀름대학의 연구자들은 공공정책의 발전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 등을 함.
- 젠더스터디학과는 젠더가 개인 및 사회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젠더가 인종, 민족, 섹슈얼리티, 계층, 장애, 연령, 국적, 종교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연구함.

2) 면담자

☐ 성명 : Anita Nyberg 교수

☐ 직책 : Professor emeritus

☐ 연구분야 : gender perspective on work and economy

☐ 관심분야

- 성 평등 정책(임금, 돌봄, 육아휴직), 노동 통계에서의 남성적인 규범

☐ 주요 연구

- 2015 “The Swedish RUT-reduction - Subsidy of formal employment or of high income earners’ leisure time?” in N. Morel and C. Carbonnier (eds.) Political Economy of Household Services in Europe. Basingstoke: Palgrave.

3) 논의사항 :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성인지 통계의 활용

☐ 한국의 성인지 통계 소개(문유경 선임연구위원)

☐ 성인지통계 시스템 소개(한진영 연구원)

- 별첨자료 3 참고

☐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현황

☐ 스웨덴 성인지 통계 생산 배경

- 스웨덴에서는 성평등을 위해 정부가 오랜 시간 노력했음.

- 성인지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즉,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통계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인지 통계 생산이 가능함.
- 80년대 스웨덴에서 적극적으로 남녀 구분해서 통계내기 시작했는데 전세계에서 상당히 관심을 얻어서 여러 나라에 많은 강의도 다녔음.

○ 통계청 내 성평등을 위한 조직 존재

- 정부 안에 평등운영위원회가 있음. 여기서 관련 교수를 초청해서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를 따르고, 이렇게 만드는 업무를 통계청에서 맡아서 진행함. 통계청에서 평등운영위원회에서 자료를 제공함. 이때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진행하는 것임.
- 또한, 통계청 안에서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서 서로 의견을 긴밀하게 주고 받으며 일함

□ 일·가정 양립과 여성정책의 발전 방향

○ ‘평등’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공유

- 사회민주당이 정권 잡아서 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진행했지만 모든 정당이 성평등을 위해 일하고 있음.
- 스웨덴은 민주주의적이고, 전반적으로 평등에 관심이 많음. 계층간 평등, 여성과 남성 간 평등, 외국과 스웨덴 간의 성평등 논의 등
- 사회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처음에는 계층문제 즉, upper class와 working class 간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함. 다음은 여성과 남성 문제, 이제는 다른 아젠다로 이동하고 있음.
- 60년대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여성들이 일하러 나가게 되면서 경제적인 조건이 갖춰지고 다음으로 평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임.
- 80-90년대는 평등 문제에서도 성적 취향에 따른 평등에 관심을 둬. 차별의 주제가 시대마다 바뀌었으며,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인종간의 성차별에도 이슈임.

○ 여성정책 방향 설정의 중요성

- 추세로 봤을 때 경제 침체가 있을 때 여성 폭력이 늘어나는 예시도 있지만 반대로 여성들이 더 직장이나 경제활동에 더 활발해 지는 경우도 있음.
-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경제 침체 시 여성의 일자리 분야를 줄이게 된다면 여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됨.
- 공공분야에서 스웨덴 여성들이 진출해서 일을 하게 되었음. 현재 스웨덴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치원, 약사, 의사 등이 공무원이어서 이쪽 분야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사회진출을 하였음.

□ 스웨덴의 최신 성인지 통계 요구

○ 스웨덴의 현재 최대 사회 문제는 난민에 관한 문제임. 이에 대한 통계가 필요함.

○ 청소년 통계에서 성별 구분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폭력에 대한 통계가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함.

- 여성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2. 제언

□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발전의 과정에 있음

- 스웨덴은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임을 표방할 정도로 여성정책, 페미니즘을 보편 타당한 가치로 공유하고 있어 여성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은 국가임
- 이러한 스웨덴도 1920년대 참정권 운동으로부터 시작하는 여성운동 및 여성정책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 즉,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설득하고 투쟁하는 과정을 이어왔다는 의미임
- 이런 스웨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여전히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확실하며, 갈등 양상도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여겨짐

□ 성인지 통계 수요 예측

-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은 매우 큰 차이가 있어 단순한 비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예측되는 수요는 존재함.
- 스웨덴처럼 여성정책이 발전한 국가도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고민이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도 여전히 여성이 출산할 수밖에 없어 출산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런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남성보다 짧을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증명하기 위한 통계가 필요함.
-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도 여전히 존재함. 특히, 파트너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 성매매 문제, 아동 폭력 등 약자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이런 폭력은 스웨덴에서도 수집하기 어려운 통계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가 필요한 실정임
-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성별 통계 뿐만 아니라 여러 변수를 교차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함.

□ 성 주류화 정책 관련

- 스웨덴에서는 성 주류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인센티브와 같은 형태로 정책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 공유를 통해 토론과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스웨덴에서는 통계청에 성평등위원회가 있어 성평등과 관련된 통계를 담당하는 파트가 존재함.

별첨 1. 스웨덴 관련 여성정책현황에 대한 Q&A(ENG & KOR)

<Q&A ENG>

‘16. 6. 19(Sun.) ~ 6. 24(Fri.)

Senior Research Fellow, You-Kyung Moon & Researcher, Jin-Young Han

A. Gender Statistics

1. I learned that in 1994 Sweden made an article that “tatistics on individuals should be disaggregated by sex, if no specific circumstances against it” (article 10) in an ordinance on national official statistics. Has this article been followed in all forms of statistics? Has gender statistics necessary for studies and policies on women’s issue been sufficiently produced?
2. When the article was made, who were actively involved in writing the article? What were done for Statistics Sweden (SCB) to accept the article? How were dissenting opinions dealt with? How did relations among and influence of the government, female scholars, and women’s organizations play a role in the process?
3. Are there any issues that need to be newly developed or are currently rising in gender statistics? In South Korea, we are discussing the need to develop statistics related to safety, especially from disaster, hatred and bully.
4. What are recent political tasks in Sweden’s Gender Statistics?

B. General Women’s Policy

1. Sweden has continuously been a highest-ranked country in terms of gender equality index provi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DP's GII (Gender Inequality Index). How does Swedish general population actually feel about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Swedish society?

2. Sweden is known as a country with a great gender equality policy.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such a successful women's policy? How do public officials' policy enforceability, power of civil society and people's civic awareness on equality interact with one another?
3. S. Korea also has great laws and systems for gender equality lik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however, the laws and systems have not been fully implemented. Has Sweden gone through the similar challenges before?
4. What are some latest issues for women's study? In South Korea, some of the important issues are women's career disruption due to marriage and childcare, evading marriage and childcare, widespread hatred for women (misogyny) in public spaces especially on internet, etc.
5. What are some challenging issues for women's policy in Sweden to overcome?

<Q&A KOR>

‘16. 6. 19(Sun.) ~ 6. 24(Fri.)

Senior Researcher, You-Kyung Moon & Researcher, Jin-Young Han

A. 성인지 통계

1. 스웨덴은 1994년에 공식통계에 관한 조례에 “특별하고 모순적인 사유가 존재하니 않는 한, 개인과 관련된 공식 통계는 성별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조항(제10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통계에서 이 조항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 여성문제의 연구와 정책에 필요한 성인지 통계가 충분히 생산되고 있는가?
2. 통계청에서 이 조항을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어떤 집단이 주도적으로 이 조항을 만들었으며, 반대 의견과의 조율은 어떤 식으로 누가 했는가? 정부와 여성학자, 여성단체들의 관계와 영향력을 어떻게 했는가?
3. 최근 이슈가 되고 있거나, 새로 개발이 필요한 Gender Statistics는 무엇인가?
한국은 안전과 관련된 통계들 특히 재난, 혐오, 괴롭힘 등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4. 스웨덴의 Gender Statistics의 최근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가?

B. 여성정책 일반

1. 스웨덴은 UNDP의 GII(Gender Inequality Index) 등 국제기구의 성평등지수에서 매년 최상위집단에 속한다.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평등정도는 어떠한가?
2. 성평등정책이 가장 훌륭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여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무원의 정책 집행 능력, 시민단체의 힘, 시민의 평등의식 등이 어떤 관계로 서로

맞물려 있는가?

3. 한국은 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등 훌륭한 법과 제도를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스웨덴은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이 없었는가?
4. 최근 여성 연구의 이슈는 무엇인가? 한국은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결혼과 육아의 기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여성혐오 등이 중요한 이슈이다.
5. 최근 스웨덴의 여성정책 중 해결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